

# ORIENTAL STUDIES

VOLUME 3 FEBRUARY 2013

## CONTENTS

---

### ARTICLES IN THEIR ORIGINAL LANGUAGES

儒家의 人倫사회와 경제원리  
서경요 ..... ii

現代文明與東亞思想 — 在日本福島東日本國際大學孔子節上的講話  
湯恩佳 ..... xxii

Essential qualities and the contemporary meaning of Confucianism  
(Confucianist philosophy)  
OH Suk Won ..... xxvi

### ENGLISH ABSTRACTS

*The Analects of Confucius* as norms for the self-regulation of the community  
ISHII Hideo ..... xxxii

Did TOKIEDA Motoki “misread” th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of  
Ferdinand de Saussure? – An essay on the role of KOBAYASHI Hideo in the  
reception of Saussure in Japan  
SEKIZAWA Izumi ..... xxxiii

---

Published annually by the Institute of Oriental Thoughts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of Confucian Culture  
**Higashi Nippon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講演論文原文】

### 儒家의 人倫사회와 경제원리

서경요 (徐炯遙,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교수)

#### <논문 요약>

유교는 人倫社會學으로서 인간의 교제관계를 중시하는 인생학이다. 따라서 유학은 전반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보다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의 주제로 일관되어 있다. 유가의 경전은 모두가 人倫日用의 도리를 신고 있다. 유학은 개인의 덕성 함양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인생체험학이다. 우리는 능력만 있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分數를 알아보게 하고 남을 알아보아 어울리며 협력하여 살아가고, 그 결과 천하공동체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된 사람’ 혹은 ‘爲人’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날 話頭로 제시되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따지고 보면, 문화적 삶의 가치로서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유가의 예악사상은 세상의 풍속문화를 풍격이 낮은 世俗化가 아니라 고상한 禮俗化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서경』 대우포편에는 正德, 利用, 厚生 이 세 가지를 정사의 주요 목표로서 三事라 한다. 그 주석에 보면 厚生은 賦役과 關稅를 가볍게 하여 농사철을 빼앗지 않아 백성의 生計를 온후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는 길은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며, 자기의 분수에 따라 예를 행하는 것을 유가에서는 禮學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도 예가 있는 禮治주의가 중시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보다 義利를 분별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다.

義利에 관한 관념은 公益과 私利로 구분하므로 義利관계는 公私관계와 같은 것이다. 義의 중심적 개념은 自他가 함께 보탬이 되어 이롭다는 인륜적 공동성을 뜻하고, 利는 나 자신 혼자만이 이롭다는 이기적인 것에서 초래하는 반인륜성이다. 공동체에서 모두 함께하는 것이 公義이다. 재물을 생산하는 데에도 大道가 있다. 여기서 大道란 일을 마름질하고 제어함을 의로써 하여 떳떳함을 잡고 이치를 좇아서 經道와 權道를 가지고 일정함과 변함에 대하여 모두 다 맞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도를 행하는 대장부는 부귀함이나 빈천함이 그를 흔들여 놓지 못한다. 군자는 먼저 덕성을 수양한다. 덕성을 지닌 자는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얻으면 토지를 지닐 수 있고, 토지를 가지면 財富을 얻을 수 있고, 재부를 얻으면 나라를 적시적소에 운용할 수 있다. 덕성이란 立國의 근본이요 財富은 지말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을 가볍게 보고서 말단을 중시하면 백성들이 다투고 서로 겁탈하는 데로 유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군주는 비록 재부를 끌어 모아도 민심이 이산하고, 반대로 재부를 나누어주면 민심이 돌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情理에 위배되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나무라면 다른 사람도 무리하게 반격하는 것이니, 정리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정리에 맞지 않게 잃어버리고 만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義理와 利害는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私利일 따름이다. 그러나 義利가 주객관을 초월하여 합치하는 것이 公의인 것이다. 인륜사회는 至公無私하여야 한다. 의리는 正邪를 구분하여 和平을 유지하는 수단인 것이요, 利害 打算은 욕심 내는 생활만을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天下의 大本으로서의 中과 천하의 達道로서의 和를 이룩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 이와 같이 인간 생명의 만남을 어울리게 하고 인간 생활의 나눔을 고르게 하는 길만이 인간생명을 살려가며, 인간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하가 균평하여 어느 一夫 한 사람이라도 그의 삶이나 소임을 完遂하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평천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심의 同一함을 가지고 타인을 제대로 헤아림으로써 彼我之間이 제각기 分數와 願意를 제대로 얻으면 上下 四旁이 均齊하고 方正하게 되어 천하가 均平할 것이다.

주제어 : 문화생명, 경제생활, 義利분별, 分數, 만남, 나눔.

### < 목 차 >

1. 緒言
2. 문화생명과 경제생활의 만남
3. 富民사상
4. 富豪와 大丈夫
5. 結語

## 1. 緒言

현대는 가치판단을 중시하는 시대이다. 일상생활이 의식주만을 해결하기 위한 삶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즐겁고 행복하다. 그것은 일상의 중복에서 벗어나 여러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 복잡 다난한 도시를 떠나 자연의 품속으로 가는 여행이 더욱 즐겁다. 여행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 견문을 넓혀가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 있어서 보지 못한 곳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생명의 기쁨과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時空을 떠나 자신의 생명과 생활에 悅樂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行樂을 즐기는 것을 진정한 휴가라고 여긴다. 이른바 福利사회는 生計만을 챙기는 생활이 아니다. 일반 시민이 문화적 가치를 누리고 삶의 여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

현대 시대의 話頭는 과학과 문화와의 융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는 인간의 價値意識의 高調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간 모두가 화평해 가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창작이 융합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경제적 득실의 결과를 따지고, 물질적 성패만을 가려내고 있다. 그러한 가치판단은 경제생산이 일상생활의 편리함에 몰두하게 되어 인간생명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하였다. 이러한 이해와 성패에 편향된 가치관의 쓸림현상은 바로 인간다움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개인과 타인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타인을 대하여 자기 보호의 본능을 확대해 가고 타인의 능력보다 더 나아가 한다는 경쟁의식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나와 남은 공동생활에서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待對관계로 살아가야 한다. 모두가 인간다움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남을 포용하는 것은 내 덕성으로써 남의 원망을 갚는다는 ‘以德報怨’의 실천 행동이다. 따라서 덕성이란 나 자신에게 있는 본바탕이 되는 마음씨일 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씀 새이다. 나의 사욕을 극복하여 남을 생각하는 사회성을 회복한다는 ‘克己復禮’ 하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이요, 나를 버리고 남을 따른다는 ‘舍己從人’하는 것이 내가 남을 待對하는 태도와 실천인 것이다. 仁義란 덕목도 남을 위하는 德行으로 실천해야 한다. 덕성이란 인간에게 하늘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본성이라 한다.<sup>1</sup> 仁德이란 두 사람 사이에 내가 지니고 있는 直心을 행하는 德行으로 표현되

는 마음이다<sup>2</sup>. 이러한 해석은 바로 인간다움이 인이요, 덕이라는 의미이다. 공자 이전의 五經에서의 德이라는 표현은 모두가 仁과 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움이란 인심과 인정을 들어내어 내가 남을 품어 안아 감싸주는 마음의 표현이다. 인간과 인간이 인정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주고 알아보는 이해와 포용이 가장 인간다운 행위인 것이다. “사람이 인간답지 않으면 예는 해서 무엇하며, 사람이 인간답지 못하면 樂은 해서 무엇하라.”<sup>3</sup> 라는 말씀도, 성현이 만든 예악문화도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제정한 것이다. 禮樂이란 인심과 인정에 順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와 문화는 모두가 인간다운 살림살이와 인간다운 참살이를 위한 통찰의 잣대이다. 과학은 공동의 合心과 協力을 원하고, 문화는 개성적 생명 창조를 바란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문화생명은 인간다움을 떠나 있다면 活力과 活性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생살이는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삼지 않는다면 생명다운 생명이 아니요, 생활다운 생활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과학기술이 產出하는 산업의 경제적 생산성에 두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動力의 開發과 加速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업화를 이루는 방법이 더욱 효율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협동과 협력에 의해 더욱 발전하고, 노동자가 합심하고, 어느 한 부분만을 알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를 알고 일에 종사해야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 성취감을 느끼고, 자발심이 생겨, 생산력이 제고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품의 소유와 노동의 代價를 분배 받아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한 성취감과 만족감은 자신을 알아주고 알아보는 情感을 느끼는 데서 增進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경영이 절실히 되는 관점에서 생산윤리와 분배윤리의 문제가 대두되는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컴퓨터이거나 로봇보다 월등하게 뒤처지고 있다는 의식에 따라 기계문명이 인간문화를 지배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또한 그러한 인식은 생활을 위한 과학과 생명을 살리는 문화가 乖離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러한 兩分化관념은 인간의 身心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 보게 되었다. 이를테면, 善心の 인성과 慾心の 인정으로 분석해 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勞心과 勞力으로 양분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두 방면이 人倫의 상관 관계 속에서 조화되고, 조절되고 있다는 생각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인간은 개인으로 孤立해서는 살지 못하고, 나와 남이 교제하며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알아보는 識見과 알아주는 包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分數를 안다는 것은 禮義廉恥를 안다는 것이요, 자

신의 역할을 파악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는 人倫社會學으로서 관계론을 중시하는 인생학이다. 따라서 유학은 전반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보다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의 주제로 일관되어 있다. 유가의 경전은 모두가 人倫日用的 도리를 실고 있다.<sup>4</sup> 유학이 인간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륜은 經典學의 주제이며, 일용은 經世學의 주된 과제인 것이다. 그것을 성현의 도라 하며,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성현이 예악문화를 제정하여 교화를 편 것이다. 인륜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일용은 생활을 살리는 일이다.

“人倫은 바로 仁倫이요 産業은 곧 生業이다. 物我가 俱生하는 것을 일러 仁이라고 하고 物我가 均仁하는 것을 일러 生이라 한다. 仁함을 안다는 것은 生의 性이요, 생이란 인함이 드러난 것이다. 天下에 어찌 無形의 性이 있겠으며, 無性의 形이 있겠는가? 이것이 인륜과 산업이 無間한 까닭이다.”<sup>5</sup> 따라서 인륜과 산업은 無間하여 마치 가정의 부부와 같은 것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면 홀아비나 과부가 가족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처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sup>6</sup> 인간의 생명은 부자관계로 유지되고 인간의 생활은 부부관계의 가정활동으로 영위된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는 개체의 생명력과 공동체의 생활력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물이 생겨나는 변화에는 그에 따른 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權道나 時中이나 時用이라 한다. 자연의 萬物은 萬變하는 존재이다. 그 변화의 원리를 찾는 일은 고대의 철학자들의 몫이었다. 그 훌륭한 사상가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최고경영자와 과학기술자로 그 역할이 바뀌어졌다. 그들은 인간을 배제하고 물질에서의 경제적 이익과 기술적 성과만이 세상살이를 이롭게 해준다는 생각에만 몰려 있다. 그러나 인생의 변고는 나와 남의 인간관계인 人倫에서 일어나는 是非曲直과 論辨으로 생겨난다. 그러한 변고는 결국 人間事를 만들어내는 인간환경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難題는 絜矩하는 도로써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남을 마음으로 품어안고 마음으로 감싸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현대는 과학이 인간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기술문명의 발달 시기에는 인간의 능력이 기계의 능력보다 뒤떨어져서 기계로부터 인간은 疎外를 당한다. 인간의 기능력은 기술개발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유학에서의 부자의 개념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부를 文物제도에 국한하여 말한다면, 역사서에서의 <食貨志>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부자가 財貨를 모으고 나누는 것도 모두 인정을 베풀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 2. 문화생명과 경제생활의 만남

유가에서 富의 문제는 인간다움의 예약문화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安貧樂道’란 빈부의 차별에 초점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또한 ‘經世濟民’이라는 경제의 의미도 인간이 사는 세상을 經綸하여 일반인을 救濟한다는 공동체 意識인 것이다.

성현은 禮樂刑政으로써 천하를 均齊한다. “예의로써 사람들의 志向을 인도하고 음악으로써 사람들의 聲音을 조화하고 政令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고 형벌로써 사람들의 간사함을 방지한다.”<sup>7</sup> 이와 같이 역대로 제왕들이 禮樂제도를 만들어 刑政을 운용함으로써 민심을 통일시키고 治國의 정도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인간다움의 문화생명을 예약문화로 남겨준 이가 바로 성현이다. “악이란 동일함을 조화롭게 하고, 예란 차별성을 분별해 준다.”<sup>8</sup> 따라서 음악의 작용은 好惡의 감정을 조화하여 사람들의 心靈을 淨化하여 煩惱者가 심정을 평정하게 하는 것이요, 禮儀의 작용은 貴賤의 등급을 갈라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제 자리를 지키게 하고 절대로 僭越하지 않아 접촉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대한 음악은 반드시 平易한 것이요, 엄중한 예의는 반드시 儉約한 것이다.<sup>9</sup> 음악은 平淡한 가운데 심각함이 깃들여 있고, 簡素한 가운데 엄격함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예는 減損하는 것이라 격려하지 않으면 점점 衰亡한다. 악은 充溢하는 것이라 절제하지 않으면 放縱하게 된다.<sup>10</sup>

“예와 악에는 本義가 있고 文飾이 있다. 예는 오로지 中하는 것이요 악은 오로지 和諧하는 것으로, 중과 화는 예와 악의 本然인 것이다. 따라서 본의와 문식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예의 문식은 玉帛과 俎豆의 부류이요, 악의 문식은 聲音과 節奏의 부류이다. 모름지기 이러한 中和가 있어야 하고, 옥백, 조두와 聲容, 절주로 문식하여야 비로소 예약이 이룩된다. 단지 중화의 뜻만 한편으로 고수한다고 바로 예약이라 이룰 수 없는 것이다.”<sup>11</sup>

인간은 身心一如로 神形妙合을 이루고 있으므로 形氣와 形體를 구별해서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예약제도 역시 人情을 바탕으로 제정한 것이다. 인간은 천지조화에 함께 참여하여 천지의 도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中和를 이룩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지는 것이다.<sup>12</sup> 덕성을 함양하는 것은 人間事를 處身하는 智仁勇 삼달덕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덕성이란 人性의 發端이다.<sup>13</sup> 그 덕성에 근본하여 德治를 하면 그 인간다움에 感服하여 자

울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자발성은 그의 潛在 능력과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타율적인 피동성은 자율적인 능동성이 缺如되어 있다. 생명이 있는 창조는 자발적인 능력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중용』에서는 인간세상인 天下에 두루 통하는 길인 達道는 中和라고 한다. “중화가 나에게 있으므로 천인(우주와 인간)이 間隙이 없으며, 천지(우주)가 제 자리를 지키는 까닭과 만물이 창조적으로 발전하며 길러지는 化育이 되는 까닭은 모두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sup>14</sup> 이러한 천지의 도는 인간에게서 떠나 있지 아니한 것이다.

유학은 개인의 덕성 함양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인생체험학이다. 우리는 능력만 있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分數를 알아보게 하고 남을 알아보아 어울리며 협력하여 살아가고, 그 결과 천하공동체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된 사람’ 혹은 ‘爲人’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날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선발 기준은 지능 지수(IQ)가 아니라 사회성 지수(SQ)에 두고 있다. 자신만의 利慾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富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평가인 것이다. 개인의 생명력이 집단 속에서 타인과 얼마나 어울릴 수가 있는지의 지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 사회성 지수의 높이는 결국 한 개인이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이며, 조직사회 속에서 자신의 潛在 능력으로 남들과 協力과 合心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가의 自發性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유학에서의 사회적 교화는 禮樂이 通行하면 사람들 모두가 화목하게 되어 서로 간에 원망을 없애버리고, 또한 사람들 모두가 제 할 일을 하게 되어 사회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 “樂敎가 통행하면 心中에 원한이 없게 되고 禮敎가 통행하면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된다.”<sup>15</sup> 자신과 타인 사이에 사소한 서운함도 없고, 사소한 시샘이 없는 것이 서로 한데 어울리는 것이다. 樂의 작용은 好惡의 정감을 조화하여 사람들의 심령을 정화함으로써 마음을 平靜하게 하는 것이요, 예의 작용은 제 각각의 계층 사람들이 지켜야 할 분수를 서로 僭越하지 않고 접촉하는 가운데에서 상호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다움과 사람노릇을 하는 仁義는 예악에 접근함으로써 예악의 정신을 體現하는 것이다.<sup>16</sup>

유가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문명과 야만을 구별하는 이른바 인간과 금수의 分辨의식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금수는 無禮하여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인간은 인간다운 예의를 가지고 있어 세련된 문화생활을 영위한다. 따라서 인간문화는 인심을 음악으로 교화하여 바로잡는다. 인간의 意識과 행위는 어느 것이 본말이며 어느 것이 선후인가를 분별해내는 일



은 무의미하다. 인간의 감성에 의해 드러나는 행동은 의식과 행위가 거의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다. 유가의 성인은 악을 통하여 민심을 착하게 감화하여 ‘移風易俗’하는 교화를 도모하는 것이다.<sup>17</sup>

오늘날 話頭로 제시되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따지고 보면, 문화적 삶의 가치로서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유가의 예악사상은 세상의 풍속문화를 풍격이 낮은 世俗化가 아니라 고상한 禮俗化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은 춘추전국시대로서 下剋上의 恣行이 일어난던 이른바 난세이었다. 이 때는 천자국인 周나라가 분열되고 제후국들이 저마다 富國強兵의 정책으로 제 나라만을 위하는 시기였다. 말하자면 천하공동체의 大利 경영이 무너지고 국가공동체의 小利 운영에 몰두하던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공자와 맹자는 富國論보다는 富民사상을 제시하였다. 孔孟은 堯舜으로부터 전래하던 유교공동체의 福祉사회를 건설하고자 유학을 집대성하고, 그 선양에 모든 힘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 때의 인간의 삶의 가치는 인의라는 인간답게 살고 사람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데 두었던 것이다. 인의란 인간의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公私의 구분을 위한 것이다. 한편, 하극상의 극치는 결국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여 無父無君의 形局이 되어 가정파괴와 무정부사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동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富貴한 자와 貧賤한 자의 소통이 절실하였다. 이에 삶에 있어서 利로움을 보면 사람노릇을 하는 義로움을 생각하라는 이른바 ‘見利思義’의 생활 지침이 제시된 것이다. 그 당시의 경제활동의 기반은 農商이 주를 이루었던 농경사회이었다. 따라서 가치판단 역시 정착문화의 영향이 매우 높았다.

우리 말에서 사람이란 어원을 보면, 사는 일(현상)이라는 삶과 아는 일(지식)이라는 앎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사람이란 지식과 행동이 함께 하는 言行一致를 제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인생살이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답게 人間的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답다는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조건에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다. 그 조건은 無禮한 짐승과 같이 저 하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나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정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말이다. 사람은 哺乳類의 靈長目に 속하는 脊椎 동물로서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가장 발달하였다. 특히 포유 동물은 母子간에 서로를 품어 안는 待對의인 好字<sup>18</sup>의 관계를 이루며 삶을 營爲한다. 포유 동물은 젖먹이를 얼마간 길러내야 한다. 그래서 따로 독립적으로 떼어 방치하지 못한다. 사람

역시 홀로 서서 직립보행할 때까지 어미의 품에서 길러져야 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망은 식욕, 색욕, 수면욕이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가에서는 인간의 대욕망은 음식남녀라 한다. “먹고 마시는 음식과 낳아 기르는 남녀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 所在한 것이요 사망과 貧苦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함이 소재한 것이다.”<sup>19</sup>

이와 같이 욕망과 싫어함은 사람들의 체력관리와 심리상태의 커다란 단서가 되는 것이다. 仁愛할 줄 아는 마음은 바로 愛己하고 愛親하는 마음을 확충하여 行事 속에서 그 愛情이 타인에게 波及되어 가는 것이다. 仁이란 兩人이 面對하면 마음이 서로 접촉되어 향해 가서 心腹하게 하는, 남에게 嚮往하여 남을 아끼는 마음씀 새이다. 바로 人倫에 處身하여 그 分數를 다하는 것이다.<sup>20</sup> 사람이 사람과 相與하는 데는 絜矩하는 도를 쓰는 것이다. 따라서 仁德이란 用心하는 데서 드러나는 인간다움이라 할 것이다. 仁자에 대해, 漢儒 鄭玄은 사람이 서로 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짝지어 산다는 것은 편을 들어 사는 것이 아니다. 待人관계가 원만해야 하고, 對物관계에 節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유학에서는 禮學이라 한다. 그리고 문물제도는 禮樂사상에 맞추어 제정한 것이다.

이른바 富라는 것은 바로 福이다.<sup>21</sup> 그것은 부유하되 禮를 좋아해야 행복한 것이다.<sup>22</sup> 인간은 인생살이를 생명적으로는 長壽하기를 추구하고, 생활적으로는 多福하기를 희구한다. 바로 壽福康寧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幸福함이란 사람들이 물질생활을 창조하고 정신생활을 실천해 가는 가운데서 자기의 이상과 목적을 의식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재물이 부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다. 情緒가 안정된 사람이며, 情理가 완비된 사람으로서 五福을 다 갖춘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이다. 우리는 안녕하신 가라는 인사말에 德分에 잘 지낸다고 답한다. 남과 남의 재물을 중개해 주는 업소를 福德房이라 한다. 그 재산권만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덕성도 함께 소개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덕성과 재물은 본말관계로 상호 德分에 따라 福德를 나누어 가지는 紹介房인 것이다.

“부유함은 집안을 윤택하게 하듯이 우리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덕성은 심신을 윤택하게 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활기차게 해 주어서, 사람의 心胸을 寬大하게 해 주고 신체를 和樂하게 해 주기 때문에 君子는 반드시 得意한 마음을 한결 같이 眞誠하게 한다.”<sup>23</sup>

부자의 개념은 경제적 가치로서만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함께 결들여야 한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활은 의식주의 문제로서 대궐과 같은 집에서 好衣好食하기를 누구나 바란다. 분수

는 타고 난다. 부는 聚散을 함께 해야 한다.

### 3. 富民사상

경제적 공동체 경영에서 중시하는 것은 개체의 욕망을 무시해버리지 않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체가 모여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정사를 돌보는 것은 養民하는 데 이념을 두고 있다. 『서경』 대우모편에는 正德, 利用, 厚生 이 세 가지를 정사의 주요 목표로서 三事라 한다. 그 주석에 보면 厚生은 賦役과 關稅를 가볍게 하여 농사철을 빼앗지 않아 백성의 生計를 온후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공자가 衛나라에 갔을 때 冉有가 수레를 몰았는데, 공자가 위나라 백성을 보시고 변성하구나 하시니, 염유가 말한다. 이미 많아졌으니 편안히 살고 부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 부하게 되면 가르쳐야 한다.<sup>24</sup> 이와 같이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생활을 넉넉하게 해준 다음에 문화적인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先富後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사회는 나와 남이 어울리며 함께 사는 공동생활의 集體 사회이다. 인간은 심신의 입체 구조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도모한다.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씨가 바로 인간다움이다. 인간은 탄생으로부터 인간관계를 맺어간다. 그 관계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그 관계에 따라 써야 할 마음씨가 다섯 가지의 덕목으로서 社會性에 주목하여, 친애함, 분별함, 떳떳함, 신뢰함, 次序를 고려함 등을 제시한 것이 이른바 五倫이다.

인간의 生存은 時空을 함께 하고, 몸과 마음이 相應하는 변화 流行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덕성은 마음의 發露로 드러나서 仁情이 되고, 인간의 情感은 몸의 발로로 仁術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仁情이란 나 자신을 살리고 남도 살리는 人情이요, 仁術이란 나 자신을 살리고 남도 살리는 人術인 것이다.”<sup>25</sup> 나를 살리는 것은 인간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남을 살리는 것은 공동생활을 살리는 일이다. 인간의 身心의 性情은 陰陽待對의 錯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체용론에서 全體와 大用이 양분하지 아니하고 二進法의으로 서로의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과 생활의 관계성에 주목한다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문학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보니 왕이 말하였다. “長老께서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내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은 어찌 반드시 이롭게 함만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

입니다.”<sup>26</sup>

이는 주나라 현왕 33년에, 맹자가 양나라에 가서 혜왕을 본 것은 그 때에 혜왕이 말을 겸손하게 하고 폐백을 후하게 하여 어진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鄒나라로부터 양나라에 이르러 도를 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양혜왕이 맹자에게 장차 깊은 도모와 좋은 계획으로 내 나라를 이롭게 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할 수 있는가를 물은 것이다. 왕이 다스림을 극진히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데 뜻이 있다면 하필이면 이로움만을 말하는가 仁義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인이란 마음의 바탕이요, 사람을 아끼는 이치이며, 義라 함은 마음으로 裁斷함이요 일을 하는데 마땅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천하에 임금이 다스리는 큰 도리인데 큰 것은 내버려두고 조그마한 이익을 탐내는가 라고 말한 것이다.<sup>27</sup> 여기서 부한 것은 남의 것을 탐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는 어떻게 내 집을 이롭게 할까 말하며, 하급관리와 서민들은 어떻게 내 자신을 이롭게 할까를 말하게 되어 상하가 서로 이익만을 취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중략) 진실로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앞세우기만 한다면 다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sup>28</sup>

이와 같이 윗사람이 이익을 아랫사람에게서 취하고 아랫사람은 이익을 윗사람에게서 취하여 상하의 사람들이 서로 이로움만을 다투면 나라가 위태해진다는 것이다. 위태로움은 서로 죽이고 빼앗아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인은 아끼는 마음을 주로 하고 의는 공경함을 주로 하는 德行이다. 財富은 물질생활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생활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경제생활은 생산, 소비, 유통, 분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제활동에 기본적인 정신적 자세는 나눔과 베푼다는 의식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가난함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개개인이 빈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뜻이다. 富益富하고 貧益貧하는 사회적 현상도 덕성을 完備한 자가 寡多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부자는 문화적 지성인이다. 부자학은 가치판단학이다. 유가에서는 진정한 부자는 대장부이다. 그에 비해 賤丈夫는 물질생활의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고 정신생활의 문화적 가치는 내버리는 拙丈夫이다. 오늘날 한국 땅에서는 淸富家가 많이 생겨났다. 그들은 분수가 넘치는 부를 얻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줄 모른다.

유가에서의 부자의 개념은 자신의 分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安分知足할 줄을 아는 자이다. 財物이 많은 자가 덕성이 넉넉한 자이라면 모자란 자에게 덕을

배푸는 자이며,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우는 자이다. 많은 자는 덜어내야 한다. 富者는吝嗇해서는 아니 되며, 貧寒한 자는 구걸만을 일삼아서는 아니 된다. 우리라는 관념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대대관계를 이루어 나와 남이 함께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大丈夫는 均分할 줄 아는 나눔의 天使이다.

富는 福자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缺乏함을 豊富함으로 분배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滿, 大, 厚, 多, 富裕, 興盛 등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부귀함은 사람들의 분명한 願望이다 그러나 정당한 수단으로 획득하지 않은 부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빈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나 일정한 情理에 부합하는 義로움을 중시하고 이로움을 경시하는 사상은 불의에 의해 얻어지는 부귀는 부질없는 浮雲과 같다고 한다.<sup>29</sup>

문화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이른바 風俗이다. 경제문화는 물질생활과 심리현상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유학에서는 예악문화라 일컫는 것이다.

“儒者는 금옥을 보배로 삼지 않고 충신함을 보배로 삼는다. 토지를 구하기를 바라지 않고 도의로써 立身하는 자리로 삼으려 하며, 재물을 많이 쌓기를 바라지 않고 많이 배워서 지식과 재주가 많아지기를 바란다.”<sup>30</sup>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는 길은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며, 자기의 분수에 따라 예를 행하는 것을 유가에서는 禮學이라고 한다.

#### 4. 富豪와 大丈夫

일반적으로 부자다운 부자를 富豪라 하고, 富傑이라 하며, 好禮하는 자라 한다. 예를 중시하는 것은 正名주의로써 명분과 분수를 제대로 배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에도 예가 있는 禮治주의가 중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義利를 분별하는 것이 강조되는 점이다.

義利에 관한 관념은 公益과 私利로 구분하므로 義利관계는 公私관계와 같은 것이다. 義의 중심적 개념은 自他가 함께 보탬이 되어 이롭다는 인륜적 공동성을 뜻하고, 利는 나 자신 혼자만이 이롭다는 이기적인 것에서 초래하는 반인륜성이다. 공동체에서 모두 함께하는 것이 公義이다. “맹자는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理라 하고 義라 한다.”<sup>31</sup> 자신의 사사로움이 없이 남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질서가 바로 復禮인 것이다.

천하는 인간 세상을 가리키고 인간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므로 천하공동체는 인류 사회를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口頭로 ‘天下國家’를 말하기를 즐거한다. 천하의 기초는 나라(國)이며, 나라의 근본은 가정(家)이며, 그리고 가정의 근본은 바로 개인(身)이다.”<sup>32</sup> 이는 천하국가는 개인을 본위로 삼아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므로 그 관계는 분할할 수 없는 連繫가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도덕적 가치 관념은 사회경제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단체 간에, 전체와 단체 간의 관계 속에서 체현되는 것이다. 개인과 타인, 개인과 단체, 개인과 사회 간의 이익관계를 조절해 주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와 타인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시에는 자아의 어느 정도의 절제나 많은 적든 간의 자기희생을 甘受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군거하는 것은 인류의 천성이며, 인간 개인은 군거사회를 떠나 고립해서 살 수가 없다. 무리의 생명은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생명에 寄託하는 바가 되어서, 인간 개체와 전체와의 사이에 人倫의 德目이 있다. 이것을 孝悌慈의 性情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효는 친애함이요, 제는 友愛함이요, 자는 자애함이다.

유교공동체주의는 인간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사회공동체로서 문화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인간 개인은 단체에서 구성원으로 직분을 지니고 있다. 인간세상에서 가족 공동체는 宗族이나 民族과는 무관한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사회이다.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인간 개인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인간 존재이다.

맹자는 ‘與民偕樂’하는 왕도으로써 천하를 통일하기를 力說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즐거움을 그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일반 대중들도 그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다. 일반 천하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 자신의 걱정거리로 삼는다면, 일반 천하 사람들도 그의 걱정거리를 자신들의 걱정거리로 만들게 된다. 천하로 즐거움을 삼고 천하로 근심을 삼으며, 그렇게 하고서도 왕노릇을 못할 자는 있지 않습니다.”<sup>33</sup>

이와 같이 근심과 즐거움을 내 한 몸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서로 통하여 상하가 틈이 없게 한다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기울여서 나에게로 돌아와 합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獨善其身’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덕성과 의리를 나 자신의 몸에 닦아서 은택이 천하 사람에게 더해지도록 ‘兼善天下’하여 인간세상을 救濟해야 하는 것이다.<sup>34</sup> 또한 왕도란 옛 성왕들이 천하공동체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짐도 없으면 왕도가 널리 시행될 것이며, 기울어지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으면 왕도는 公平할 것

이며, 반역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면 왕도는 바르고 곧을 것이니, 법칙을 지키는 이들만 모으면 법칙을 지키는 이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sup>35</sup>

힘으로 仁을 빌리는 霸道나 덕성으로 인함을 행하는 왕도는 모두 다 사람을 복종하게 한다. 그러나 힘으로써 복종하게 하는 것은 강하고 큰데 꺾박되고 힘이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못해 복종하는 것이다. 덕성으로 복종하게 되면 그 복종함이 외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衷心으로 사랑해서 지성으로 복종하는 것이다.<sup>36</sup> 패도에 의한 복종은 바로 타율적인 복종이요, 왕도로써 하는 것은 바로 자율적으로 感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위한 是非의 구현과 경제적인 삶을 위한 利害의 추구를 조화시키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조화와 조절의 잣대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다움에 두어야 한다는 人本主義인 것이다. 따라서 유학에서는 時中과 權道를 제시하여 그 상황의 경중과 緩急을 따져 處事의 선후를 정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中을 얻는 것을 권도라 하고, 일을 처리함에 합당한 것을 義라고 한다. 권도으로써 변화에 대응하고 의로써 일을 처리하면, 나라를 위해 더 이상 뭐가 있겠는가?’<sup>37</sup>

富豪는 小利를 탐내어 大失하는 賤丈夫가 아니라 豪傑인 대장부이다.

“옛날에 시장에서 交易하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없는 물건과 바꾸면, 유사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분쟁을 다스릴 뿐이었다. 그런데 賤丈夫 한 사람이 龍斷을 찾아 올라가서 좌우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이익을 망라하자,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따라서 그에게 세금을 징수하였으니, 장사꾼에게 세금을 징수한 것은 이 천장부로부터 비롯되었다.”<sup>38</sup>

이와 같이 자기만의 이익을 바라는 자는 장사꾼이요, 천장부인 것이다.

“천하의 선비가 마음 속으로 기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욕심내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근심을 풀 수 없었다. 好色함은 일반 사람들이 욕심내는 일인데도 순임금은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삼고서도 근심을 풀지 못하였다. 부유함은 일반 사람들이 욕심내는 일인데 부유함이 천하를 가졌음에도 근심을 풀지 못하였다. 귀함은 사람들이 욕심내는 일인데도 귀함이 천자가 되었음에도 근심을 풀지 못하였다. 이처럼 속으로 기뻐함과 호색함과 부귀함에서도 근심을 풀 수 없었고, 오직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근심을 풀 수 있었다.”<sup>39</sup>

여기서는 孝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간의 욕망 가운데 富貴함은 그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제나라에 한 아내와 한 첩으로 더불어 한 집에 살던 良人이 있었다. 이 남자는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후에 돌아오곤 하였다. 그 아내

가 누구와 같이 마시고 먹었는가를 물으면 모두 부귀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아내가 의심하여 첩에게 말하였다. “우리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후에 돌아오는데, 누구와 같이 먹었는가를 물으면 모두 富貴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달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다. 내가 한번 남편이 어디에 가는지 엿보아야 하겠다” 이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나가는 때를 타서 몰래 가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남편은 온 도시 가운데를 돌아다녀도 함께 만나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마침내 동쪽 성곽의 무덤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남은 음식을 빌어먹고, 부족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먹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배부르게 먹는 방법이었다. 이에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첩에게 말하였다. ‘남편은 평생을 우러러보고 의탁하여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모양이다.’ 이에 첩과 함께 남편을 원망하고 꾸짖으며 뜰에서 울고 있는데, 남편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득의양양하면서 아내와 첩에게 교만을 부렸다. <sup>40</sup>

그런데 부귀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일 것이고, 이처럼 계속 같이 마시고 먹었다면 왕래가 있어야 마땅한데 우리 남편이 나가는 것만 보았고, 찾아오는 사람은 볼 수 없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이에 남편이 부귀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이 배부르게 먹는 음식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 이제 그 행실이 이와 같으니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러러보면 무엇 하겠는가?

이어서 맹자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한다.

“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람 가운데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자들은 그 아내와 첩이 그것을 보면 부끄러워하여 서로 울지 않을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sup>41</sup>

지금 세상에서 부유하고 귀한 사람들은 득의양양하면서도 도무지 욕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한다. 보통 사람이 이들을 보면 도한 즐거움이라고 하겠지만, 도가 있는 군자로서 본다면, 부유함과 귀함을 구하는 감정과 태도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다만 그 아내와 첩이 이러한 상태를 보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 아내와 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함께 울지 않을 경우가 적을 것이다. 제나라 사람처럼 다른 사람만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지조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군자는 남의 맛있는 음식이나 화려한 의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이익과 의리의 경계를 엄격하게 지키고 지극히 굳세고 지극히 큰 기운을 기르는 것이다. 바로 이른바 浩然之氣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화는 맹자가 제나라 사람을 빌어서 부유함과 귀함을 구하는 자의 추한 태도를 형용한 것이다. 가령 부귀를 구하는 자가 왜곡된 도로써 어둔 밤에 애



걸하고는 낮에는 남에게 표리부동하게 교만을 부린다면 이런 제나라 삶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반해 진정한 부호이라면, 천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며, 빈천이 절개를 변하게 하지 못하며, 威武가 지조를 굽게 하지 못하는 것, 이를 대장부라고 이르는 것이다.”<sup>42</sup>

여기서 大道란 일을 마름질하고 제어함을 의로써 하여 몇몇함을 잡고 이치를 좇아서 經道와 權道를 가지고 일정함과 변함에 대하여 모두 다 맞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도를 행하는 대장부는 부귀함이나 빈천함이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

부귀한 사람으로서 예를 愛好할 줄 알면 교만하거나 방탕하지 않으며. 빈천한 사람으로서 예를 애호할 줄 알면 생각 속에 首尾를 잘 따져보아서 일을 행함에 미혹되지 않는다.<sup>43</sup> 예의란 사람의 행위를 규범화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성숙하게 해 준다. 따라서 사람이 시비를 명변하게 해 주며, 과감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인간사회를 빈궁한 자와 노인을 구제하는 방법은 禮治를 해야 한다.

“貧窮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화를 봉헌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예이며, 나이 든 노인에 대해서는 筋力을 써서 跪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예이다.”<sup>44</sup> 이와 같이 예의 규범성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변화에 응하는 것이다. 빈부나 화복은 상대적인 가치판단에서 따지는 것이므로 행복한 사회는 균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福祉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나이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孤兒라 하고, 나이 들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獨居 노인이라 하고, 늙어서 지어미 치가 없는 이를 홀아비라 부르고, 늙어서 지아비 부가 없는 이를 과부라 부른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생활이 곤란해져도 의지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으로서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盲啞, 龯兒, 절음발이, 앓은뱅이, 四肢가 끊어진 자 왜소한 난장이 등도 규휼해야 할 사람들로써 각종 工匠들이 모두 스스로 기물을 제조하는 기술을 맡겨 양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sup>45</sup>

여느 사회의 문명화 정도에 따라 결손 가정이나 장애자는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一助가 되는 기업이라 할 것이다.

## 5. 結語

부귀와 빈천의 구별은 그 지위와 경제력으로 차별화하는 말이지만 경제사회구조로 보면, 전체 경영과 세부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분별이라 할 것이다.

인생이란 말은 인간의 생명과 생활의 합성어이다. 부귀와 빈천이란 물질생활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진정한 부자다운 부자는 인생을 안락하게 살아가는 자이다. 덕성은 사회성 지수이다. 인간의 본성은 천부적인 것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덕성이다. 공자는 桓魋에게서 곤욕함에 처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낳아 주었으니, 환퇴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sup>46</sup>이다. “천지의 덕을 한마디로 다해 본다면 仁일 따름이다. 인간의 마음도 역시 한마디 말로 요약하면 仁일 뿐이다.”<sup>47</sup>

그러므로 덕이란 근본이요, 재물이란 말엽이 되는 것이다. 근본을 밖으로 하고 말단을 안으로 하면, 백성을 다투게 하여 탈취하도록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모으기만 하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재물을 나누면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sup>48</sup> 본말이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일을 하는 데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유교에서의 경제원리는 義利에 관한 분별이다. 다시 말하면, 남을 아끼는 덕성과 남을 이롭게 하는 德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군자는 먼저 덕성을 수양한다. 덕성을 지닌 자는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얻으면 토지를 지닐 수 있고, 토지를 가지면 財富을 얻을 수 있고, 재부를 얻으면 나라를 적시적소에 운용할 수 있다. 덕성이란 立國의 근본이요 財富은 지말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을 가볍게 보고서 말단을 중시하면 백성들이 다투고 서로 겁탈하는 데로 유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군주는 비록 재부를 끌어 모아도 민심이 이산하고, 반대로 재부를 나누어주면 민심이 돌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情理에 위배되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나무라면 다른 사람도 무리하게 반격하는 것이니, 정리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정리에 맞지 않게 잃어버리고 만다.”<sup>49</sup>

“재물을 내어 불리는 데도 분명한 정도가 있어야 한다. 재물을 생산하는 자가 많고 소비하는 자가 적으며, 일하는 사람이 재빠르고 사용하는 자들은 느긋하게 한다면, 그런 국가의 재정은 충족할 것이다. 덕성인은 재물을 운용하여 국가와 백성을 발전시키고, 仁德하지 못한 사람은 나라와 백성을 이용하여 재물을 끌어 모으기만 하는 것이다.”<sup>50</sup>

“자기 집에서 乘(고대의 戰車)을 끄는 네 마리의 말을 기르는 대부는 닭이나 돼지를 기르는 사소한 일을 따져서는 아니되며, 얼음을 나누어 받아 喪祭를 치를 만한 대부는 소나 양을 길러서는 안 되며, 백대 수량의 兵車를 거느린 卿大夫는 재물을 끌어 모으는 신하를 길러 수용해서는 안 된다. 재물을 끌어 모으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도적질 하는 신하를 두는 게 더 낫다.”<sup>51</sup>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獨寡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義利를 분별하는 분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은 집합 사회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시간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공간적으로 즐거움을 享有하는 것이다. 인간 개인은 자신을 알아주는 지기와 동무가 되고, 남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 知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살려가는 창조와 생활을 살아가는 문화를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이다.

人倫사회는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인간 개체와 개체가 나와 남으로 만나고, 개체와 集體가 만나는 집합체로서 공동사회를 이룬다. 그 만남의 사회성은 人情感의 나눔에 의해 和樂함을 얻어 태평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적인 삶과 과학적인 삶이 만나려고 한다면, 仁情과 仁術이 본말, 시중, 선후, 그리고 내외가 되어 內聖外王의 도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환경에 의한 인간경영인 것이요, 창조경영인 것이다. 환경윤리란 자연환경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적 환경도 포함되는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義理와 利害는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私利일 따름이다. 그러나 義利가 주객관을 초월하여 합치하는 것이 公의인 것이다. 인륜사회는 至公無私하여야 한다. 의리는 正邪를 구분하여 和平을 유지하는 수단인 것이요, 利害 打算은 욕심 내는 생활만을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天下의 大本으로서의 中과 천하의 達道로서의 和를 이룩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sup>52</sup> 이와 같이 만남을 어울리게 하고 나눔을 고르게 하는 길만이 인간생명을 살려가며, 인간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하가 균형하여 어느 一夫 한 사람이라도 그의 삶이나 소임을 完遂하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평천하인 것이다.”<sup>53</sup> “그러므로 인심의 同一함을 가지고 타인을 제대로 해야함으로써 彼我之間이 제각기 分數와 願意를 제대로 얻으면 上下 四旁이 均齊하고 方正하게 되어 천하가 均平할 것이다.”<sup>54</sup>

문화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다. 그것은 나와 남이 함께 문화적 소통을 통하여 삶을 질적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일이다. 문화생명의 상징성은 인간다움이다. 나와 남이 함께 생명의 기쁨과 생활의 즐거움을 누

리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생인 것이다.

< 참고문헌 >

『禮記』

『論語』

『大學章句』

『中庸』

『孟子』

陳淳, 『北溪字義』

權近, 『禮記淺見錄』

戴震, 『原善』

丁若鏞, 『與猶堂全書』

李元龜, 『心性錄』

陶一桃, 『中國古代經濟思想』, 中國經濟出版社. 2000. 北京.

1 『論語』 述而. 天生德於予.

2 丁茶山, 『與猶堂全書』中庸自箴.

3 『論語』 八佾.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4 權近, 『禮記淺見錄』 河崙序. 禮經聖人入教之大典 而切於人倫日用者也.

5 李元龜, 『心性錄』 第一 上部. 人倫卽仁倫 產業卽生業也 物我俱生謂之仁 物我均仁謂之生也 是知仁者 生之性也 生者仁之形也 天下豈有無形之性無性之形也哉 此人倫產業之所以無間也.

6 李元龜, 『心性錄』 第一 上部. 人倫比之如夫 產業比之如妻 單舉人倫而不治產業者 鰥也 獨取產業而不循人倫者 寡也 如知之則 孰欲鰥居 孰願寡處 人倫效天效日 產業法地 法月 天氣下降 地氣上昇 然後四時行焉 萬物生焉.

7 『禮記』 樂記. 禮以道其志 樂以和其聲 政以一其行 刑以防其奸.

8 『禮記』 樂記. 樂者爲同 禮者爲異.

9 『禮記』 樂記. 大樂必易 大禮必簡.

10 『禮記』 祭義. 禮減而不進則鎖 樂盈而不反則放.

11 『北溪字義』 陳淳, 『禮樂』. 禮樂有本有文 禮只是中 中和是禮樂之本然 本與文二者不可闕一 禮之文 如玉帛俎豆之類 樂之文 如聲音節奏之類 須是有這中和 而又文之以玉帛俎豆聲音節奏 方成禮樂 不只是偏守中和底意思 便可謂之禮樂.

12 『中庸』 第 1 章.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13 『禮記』 樂記. 德者 性之端也.

14 朱熹, 『四書集注』 中庸首章說. 中和在我 天人無間 而天地之所以立 萬物之所以育 其外不是矣.

15 『禮記』 樂記. 樂至則無怨 禮至則不爭.

16 『禮記』 樂記. 仁近於樂 義近於禮.

17 『禮記』 樂記. 樂也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故先王之教焉.

18 好라는 문자는 母와 子의 형상자로서 어미가 자식을 보듬어 안은 형상을 본뜬 것으로 좋다는 뜻이다.

- 19 『禮記』禮運.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死亡貧苦 人之大惡存焉.
- 20 丁若鏞, 『與猶堂全書』論語古今註 卷 3. 仁者嚮人之愛也 處人倫盡其分 謂之仁.
- 21 『禮記』郊特牲. 富也者福也.
- 22 『禮記』雜記. 『論語』述而.
- 23 『大學』傳 3 章.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
- 24 『論語』子路.
- 25 李元龜, 『心性錄』第一 上部. 仁情者 生己生人之情 仁術者 生己生人之術.
- 26 『孟子』1. 양혜왕장구상,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利於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 27 『孟子』1. 양혜왕장구상, 의해. p.4, 참조. 유교경전번역편찬위, 성균관대출판부, 2006. 서울.
- 28 『맹자』1. 양혜왕장구상, 의해. p.4, 참조. 유교경전번역편찬위, 성균관대출판부, 2006. 서울.
- 29 『論語』述而.
- 30 『禮記』儒行.
- 31 『孟子』告子上.
- 32 『孟子』離婁上, 人有恒言 皆曰天下國家. 天下之本在國, 國之本在家 家之本在身.
- 33 『孟子』梁惠王下.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 34 孟子』盡心上. 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 35 『書經』洪範.
- 36 『孟子』公孫丑上. 以力服人者 非心服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 37 『栗谷全書』拾遺 卷 5, 時弊七條策.
- 38 『孟子』公孫丑下. 古之爲市者 以其所有 易其所無者 有司者治之耳 有賤丈夫焉 必求龍斷而登之 以左右望而罔市利 人皆以爲賤 故從而征之 征商 自此賤丈夫始矣.
- 39 『孟子』萬章上. 天下之士悅之 人之所欲也 而不足以解憂 好色人之所欲 婁帝之二女而不足以解憂 富人之所欲 富有天下 而不足以解憂 貴人之所欲 貴爲天子 而不足以解憂 人悅之 好色富貴 無足以解憂者 惟順於父母 可以解憂.
- 40 『孟子』離婁下. 齊人 有一妻一妾而處室者 其良人 出則必壓酒肉而後反 其妻問所與飲食者 則盡富貴也 其妻告其妾曰 良人 出則必壓酒肉而後反 問其與飲食者 盡富貴也 而未嘗有顯者來 吾將矚良人之所之也 蚤起 施從良人之所之 徧國中 無與立談者 卒之東郭墻間之祭者 乞其餘 不足 又顯而之他 此其爲壓足之道也 其妻歸告其妾曰 良人者 所仰望而終身也 今若此 與其妾 訕其良人而相泣於中庭 而良人 未之知也 施施從外來 驕其妻妾.
- 41 『孟子』離婁下. 由君子觀之 則人之所以求富貴利達者 其妻妾 不羞也而不相泣者 幾希矣.
- 42 『孟子』滕文公下.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之 與民由之 不得之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 43 『禮記』曲禮 上. 富貴而知好禮 則不驕不淫 貧賤而知好禮 則志不懼.
- 44 『禮記』曲禮 上. 貧者不以貨財爲禮 老者不以筋力爲禮.
- 45 『禮記』王制. 少而無父者謂之孤 老而無子者謂之獨 老而無妻者謂之矜 老而無夫者謂之寡 此四者 天民之窮而無告者也 皆有常饘 暗聾跛躄斷者侏儒 百工各以其器食之.
- 46 『論語』述而.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 47 戴震, 『原善』. 天地之德可以一言盡也 仁而已矣 人之心其亦可以一言盡也 仁而已矣.
- 48 『大學』傳 10 章. 德者本也 財者末也 外本內末 爭民施奪 是故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 49 『大學章句』傳 10 章. 是故君子 先慎乎德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德者本也 財者末也 外本內末 爭民施奪 是故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是故言悖而出者 亦悖而入 貨悖而入者 亦悖而出.
- 50 『大學章句』傳 10 章.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仁者以財發身 不仁者以身發財.
- 51 『大學章句』傳 10 章. 畜馬乘 不察於雞豚 伐冰之家 不畜牛羊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 與其聚斂之臣 寧有盜臣.
- 52 『中庸』第 1 章.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 53 『大學章句』傳 10 章 新安陳氏注. 如此則 天下均平 而無一夫不遂其所矣.
- 54 『大學章句』傳 10 章 朱熹注. 是以君子 必當因其所同 推以度物 使彼我之間各得分願 則 上下四旁 均齊方正 而天下平矣.

## 現代文明與東亞思想 ——在日本福島東日本國際大學孔子節上的講話

孔教學院院長 湯恩佳博士

孔曆二五六二年 2012年6月22日

各位同道、各位嘉賓：

孔子是一位成就和貢獻非常偉大、人格非常崇高的思想家、教育家。雖然他的學說是根據在二千五百多年前他的一生所見、所聞、所思，透過不少憂患、磨練和奮鬥所體會出來的哲理，但其中所包含的哲學、宗教、教育、法律、政治、經濟等各種思想，流傳至今，其影響力跨越國界、跨越時代。在世界上，中、日、韓三國受到孔子思想的影響最大。孔子思想至今仍是中、日、韓三國人民的道德觀與價值觀的主體。

早在西元 238 年，孔教經典就傳到了日本。及後，聖德太子在攝政的 30 年間（西元 593 年至 622 年），尊崇儒家文化，向中國派出了“遣隋使”和留學生，他親自制定《十七條憲法》，將儒家思想作為官員必須遵守的道德規範。天智天皇（西元 662 至 671 年在位）設置大學寮，即以儒家經典為教科書。自此，日本學校教育都在繼承孔教儒學並且取得極好的發展。日本以王陽明思想作為精神武器，推行明治維新，長期以來弘揚儒家思想，竭力保護自己的傳統文化，儒釋道及神道教信徒約占 90% 以上。美國著名史學家賴肖爾說：“公開承認自己是‘孔孟之徒’的人幾乎沒有，但在某種意義上來說，幾乎一億日本人都是‘孔孟之徒’。”2007 年 12 月 30 日，首相先生及夫人福田貴代子來到曲阜參觀了孔廟，並發表感言說：“產生於 2500 多年前的孔子思想，在當今依然具有很大的影響力，閃爍著智慧的光芒，這不能不令人感歎。儒家思想對中國和日本都產生了重要影響，是日中兩國文化的共同點。”

漢武帝時採納董仲舒建議，實行“獨尊儒術”的政策，標誌著儒教從此成為國教，影響了中國約兩千年的國情。從漢代直至清朝中期，儒教維持著中國國教的地位，孔教儒家思想一直是中華民族的主導思想。從西漢至鴉片戰爭時期，中國的人口基本上保持在全世界人口的三分之一以上，可以說，在這漫長的歷史時期，全球三分之一以上的人，都是儒教信徒。在 17 世紀中葉以前，中國一直走在世界的最前列。中國本應當是孔子儒家文化的大本營，但自二十世紀初「新文化運動」以來，孔子儒家文化受到嚴重的衝擊。現在，中國政府對孔子儒家文化給予了正面肯定，並且在世界各國興辦了三百多所孔子學院，在國內政策上，弘揚儒家思想，主張“以人

爲本”、“和諧社會”、“建立中華民族的共有精神家園”，主張“必須把弘揚和培育民族精神作爲文化建設極爲重要的任務，納入國民教育全過程，納入精神文明建設全過程，使全體人民始終保持昂揚向上的精神狀態。”

孔子就是中華民族的精神導師，孔子儒家思想就是中華民族精神的集中體現，因此，要將民族精神納入到國民教育中去，實質上就是應當將孔子儒家思想納入到國民教育之中去。今年二月，中華書局出版發行了一套教育部實驗教材，書名分別是《仁》、《義》、《禮》、《智》、《信》、《忠》、《孝》、《廉》、《毅》、《和》，其實也就是將孔子儒家思想的核心價值作了現代演繹，重新用孔子儒家思想培育中國人的道德觀與價值觀。孔教是香港六大宗教之一，也是聯合國承認的十三個宗教之一。香港孔教學院自1930年由進士陳煥章博士創立至今八十年來，一直都是集宗教、文化教育於一身的團體。本人自擔任孔教學院院長以來，捐資一億五千多萬用於弘揚儒家思想，發表九百五十多場學術演講，使孔教學院成爲全世界孔教儒學的核心陣地。

在韓國，以成均館爲代表的儒家文化陣地，秉承優良傳統一代接一代的從未曾間斷過。中、日、韓三國作爲儒教文化圈的核心國家，應當合作起來，共同致力於推動儒家文化的復興。日本的生存與發展，最大的問題就是在美國與中國之間保持平衡，如果過度依賴於美國，疏遠中國，對日本是極爲不利的。最近，日本前首相福田康夫在北京接受訪問時，提出：“我想中日兩國只要攜手合作的話，能做成意想不到、很好的大事。我們不能因爲一些小事而吵架。”我非常讚賞他的這種意見。

### 一、弘揚孔子儒家思想，重建東亞價值觀

孔子思想的光輝，超越時空，深刻地影響了全球的發展，對人類精神文明作出了不可或缺的貢獻。孔子是人類歷史上最偉大的思想家，儒家學說的創始人，是孔教的創教教主，是中華民族的精神導師，集中華文化之大成，整理《詩》、《書》、《禮》、《樂》、《易》、《春秋》等六經，並將中華文化的精華濃縮在《論語》一書裏。孔子建立起人類思想最完整的體系，主張“仁者愛人”，宣導仁、義、禮、智、信五種基本道德，在人類歷史上首次建立了有系統的道德理論。在人際關係中主張“以德服人”，在社會生活中主張“爲政以德”，在自己的生活中身體力行。

孔子是人類最早設立“私學”，聚徒講學，從而被尊爲萬世師表、先師聖人。孔子是最具民主思想的政治家，最早提出“選賢與能”的自由選舉。孔子畢生的努力，是在於用正道去引導統治者，而不是作爲統治者之鷹犬。1921年12月，共產國際的代表馬林(Henk Sneevliet)曾經問孫中山先生：“你的革命思想，基礎是什麼？”孫中山先生明確地回答說：“中國有一個道統，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相繼不絕，我的思想基礎，就是這個道統，我的革命，就是繼承這個正統思想，來發揚光大”。

## 二、弘揚孔子思想，重建東亞道德觀

孔子是人類歷史上最早的人本主義思想家。孔子尊重人的生命，重視人的價值及人倫道德。人的生存、價值、尊嚴、教育，以至家庭和社會組織成了儒學一貫關心的課題。儒學明確斷言，管理、治理的核心是人，管理的主體和客體都是人。以性善論為基礎的人性管理模式，充分體現了儒家管理思想的人本主義性質。孟子認為，人具有先天的「善端」，即善的萌芽，人的善端表現出來就有善心和善德。人所具有的這種善德是人從事一切有利於社會行爲的內在依據。「仁者愛人」，是孔子關於「仁」的最本質的概括。儒家認為治國以民為本，因此，施仁政就必須「修己以安人，修己以安百姓」，孔子認為「修己」是手段，「安人」才是目的，這說明仁政的實質應為天下百姓謀求利益。

孔教儒學是人類精神文明的寶貴遺產，載負著人類最完善的精神價值體系，在經濟全球化的今天，仍然是人類精神文明建設的基礎。我們應當弘揚儒學，通過文明對話、交流與傳播，使之成為全球人類精神文明的重要組成部分。《論語》就是全人類的聖經，《論語》中的許多至理名言，諸如：“和為貴”、“和而不同”、“仁者愛人”、“己欲立而立人，己欲立而立人”、“己所不欲，勿施於人”等等，成為中國乃至全人類共同的道德信條。只要我們深入《論語》，理解和貫徹實踐孔子儒家的道德精神，在中國復興孔教儒家思想，甚至一定能徹底消滅左傾思潮的後遺症。

## 三、弘揚孔子儒家思想，重建東亞經濟觀

金融海嘯、歐債危機向全世界響起了警號：以利益掛帥的核心價值，以物欲為動力的市場機制，以破壞環境、攻伐自然為目標的發展模式，以金融衍生為特色的虛擬經濟策略，這些都應該劃上句號！全球金融海嘯與歐債危機，病徵是「經濟」，其病因卻是「道德」。在孔教儒家看來，要根本解決此病症，就必須從道德入手。單靠法治與知識並不能確保一個社會的正常運行，還必須是按儒家的「仁智統一」的思想，在法治基礎上，加上孔教儒家道德的力量，才足以使社會處於健康的狀態。

如果全世界人民遵守孔子儒家的道德，就不會發生金融海嘯。即使發生了金融海嘯，世界人民按照孔子儒家的教導，也能及早走出金融海嘯的困境。在戰勝金融危機的過程中，必須弘揚儒家的仁者愛人、以義制利、誠實守信、以人為本、以德為重、以和為貴、中庸之道等精神。

## 四、弘揚孔子思想，重建東亞和平觀

在宗教領域，儒教就是孔子貢獻給人類的精神珍品。儒教是屬於全人類的，因為，儒教是最符合人性的宗教，因而可以超越國界，超越時空，超越民族，成為全人類寶貴的精神財富。孔子儒家思想“和而不同”的原則，不強求各種文化在內容上和形式上的相同，而是承認各種文化在內容上和形式上的各自具有不同的特色，只要



堅持“和爲貴”的原則，採取寬容的態度，就能保護和發展世界各族人民的民族文化，避免世界文化的單一化和平面化，按照“和實生物”的原理，達致世界多元文化共存共榮。

我們提倡“和而不同”的精神，目的是要解決當今世界的各種矛盾衝突，發揮它在維護民族團結，促進世界和平的重大作用。在地球村裏，任何一個民族的利益都不能離開人類的共同利益。當今世界的政治、經濟、生態的發展都是全球性的，人類在互愛中共存，在互仇中俱損。發達國家與發展中國家，都要互相依賴。同樣道理，同一地區相近或相鄰的各國各族之間，也是共同利益大於它們之間的分歧與矛盾。和則兩利，鬥則兩傷。真正爲本民族利益著想的人，必定是主張睦鄰友好的人。冤家宜解不宜結，歷史的紛爭只能通過談判、妥協、諒解來解決，而不能訴諸武力。歷史大儒張載說過：“仇必和而解”。離開此理，仇恨解決永無出路。

本人堅信孔教儒家思想在國際上有五大主要功能：

- 一、能促進世界和平；
- 二、能提升全人類道德素質；
- 三、能與世界多元文化共存共榮；
- 四、能達致與世界各宗教文化平起平坐；
- 五、是全人類共同達致的大同理想。

謝謝各位，並祝各位

事業進步，身心康泰！

（本人上列講詞，如有同感，請廣肆宣傳，歡迎再複印給各親友。功德無量！）

# Essential qualities and the contemporary meaning of Confucianism (Confucianist philosophy)

Oh Suk Won

President of Sungkyunkwan Confucian Graduate School

## 1. Addressing the Issue

Confucianism has influenced many countries in East Asia, including its place of origin, China for as long as several thousands of years. Importantly, this philosophy is the one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values and lifestyle of the Korean people. To understand the qualities of Confucianism that have affected East Asian culture including Korea, and integrating the merits of the philosophy into the 21st century, we must pursue ethical values and strive to obtain wisdom. We can see new cultural trends of the 21st century and the choices of paths we can follow go. It aims to renew the study of Confucianism.

Earlier, comparing Puritan thought in the West with Confucianist philosophy in the East, social scientist Max Weber(1806~1920) indicated concretely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inherent to Confucianism as the radical causes that hinder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ast Asia. But in the 1980s, most countries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Japan,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achieved tremendous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at, many scholars in the West accepted that they may have interpreted Confucianist thought with prejudice and indicated a lack of understanding of Confucianist philosophy in the past.

For example, Du Yoo Myeong, of Harvard University, and Sa Se Hui, from East Sea University in Japan, has discussed adding Confucianist ethics to the discussion of contemporary capitalism. In 1990s, as Samuel Huntington, a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used the newly coined term, "Confucianist capitalism",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fucianist economic ethics and

the deep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s and Confucianism.

As will be seen, there are two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functions of Confucianism that are based on economic ethics. What is important is to correctly perceive the qualities of Confucianism that had supplied wisdom to large groups of people for a long part of human history. It is clear that Confucianism in the historical process revealed itself through diverse appearances according to local and personal traits.

Under any consideration, they all possess elements of universality and specialty, essence and phenomenon, the right function and reverse function. Indulged in universal qualities of the philosophy, we must not ignore the variants.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see both aspects simultaneously, for example, universality and specialty with an objective view. It is important to note the merits derived from the philosophy and to find a way to bring these merits to contemporary society.

## 2. Essential Qualities of Confucianist Philosophy

Confucianist philosophy is originated with Gongja (Confucius, 551~479 B.C). The most notable feature of his philosophy is its focus on changing people's sense from god centered thought to human centered thought. That is, his philosophy made people's knowledge transcendent of divine nature through human's moral consciousness in which the human includes the spiritual will of the divine. In other words, if a human embodies humanity's inherent original nature in the right way, the human will not only embody his or her own physical presence, but also get in touch with the spiritual world.

To understand essential features of Confucianist philosophy, Above all, to understand essential features of Confucianist philosophy, we must comprehend it through his writing 『NONEO』, which contains Confucius's original thoughts. In his writing 『NONEO』, Gongja, Confucius emphasized courtesy as the basis of human action, righteousness as the correct standard value and benevolence the basis of human relationships. Looking at the essential qualities of Confucianist philosophy, we can summarize it by examining the following 5 points:

First,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is human centered.

Morality that is pursued in Confucianism is human morality. So, first of all, an individual's identity and social relationships matter a great deal. In Taoism the role of nature differed from ordinary religions from this basic standpoint. This idea of human centered Confucianism does not mean that humans should dominate everything under the sun, but it embodies a humanitarian philosophy that pursues to coexist with all beings in the universe.

Second,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is one that affirms the real world.

It also emphasizes seizing the day, rather than emphasizing things of the past or future.

In our daily routine, it is said that we should do our best at the moment. It is a practical living philosophy, not an idealistic utopia. So, from these standpoints, this philosophy is different from Buddhism and Taoism, with their inherently negative views of the real world. Confucianism states that we achieve ultimate enlightenment if we do our best in given situations.

Third, this philosophy values motive and process. The effort and intention can have greater significance than the consequence. The result and aim is important, but motive and process are more so. If we try with a pure mind and sincere attitude, we will move closer to our values.

Fourth, practice is of great importance. There should be practice prior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Eastern philosophies, which seek to have the human being at the center of knowledge. So, while it is important to have extensive knowledge, it demands the practice that matches an individual's personality.

Fifth, it is the philosophy that embodies the human being. The aim and motive is to pursue proper living to achieve the self-realization of human beings.

### **3. Nature of Korean and Toegye studies**

The region marked by Confucian culture is generally 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Of these countries, the values and rites of Confucianism have been best preserved in Korea. Today, while diverse religions and philosophies are combined, based on Western-culture, the lifestyle and consciousness of Korea still consists of Confucian values. Confucian philosophy still exists in the Korean lifestyle. The effects of Confucian

philosophy's influences on the ethnic flavor and character of the Korean people are as follows:

It is important for Koreans to maintain the dignity and morality of humanity. These ideals are easily found from as far back as the Dangun myth (the founder of the Korean Nation) and humanitarian ideals. It contains love of humanity and a universal view of mankind.

In addition, Koreans respect education and it is a nation which gives serious consideration to manners and etiquette. According to Chinese book, Huhanso, it is written that Koreans have a benevolent temperament and like peace, and so it has called Koreans true gentleman and Korea the country of courteous people in the East.

Confucian philosophy stimulates the mind of the true gentleman and the scholar, so it has led Koreans to study more. One of several factors in Korea's dazzling economic growth is the influence of Confucian philosophy on higher education.

Koreans are a people who regard respecting our ancestors and parents as of highest importance. Ancestor worship is a traditional element of Korean culture which originated in ancient times, which is easily confirmed through epigraphically evidence. Filial piety has been one of the cornerstones of Korean society.

Also, humanity and truth are valued by Koreans. Moralist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had accepted Confucian philosophy as the official method to analyze moral practice and social justice.

Therefore, moralist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such as Jeongam Jo Gwangjo (1536~1684), based themselves on Confucian philosophy, and attempted positive political reform. Confucian philosophy was analyzed and refined by the scholars of the Mid-Joseon Dynasty such as Yulgok Lee-I (1536~1684) through their discourses.

Confucian philosophy was carefully examined by Toegye Lee Hwang, who, more than earlier scholars, minutely systemized and readjusted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The Key feature of Toegye Studies is human studies.

Toegye had firm values, based on strong faith and belief, to realize nature of humans via noble acts and emotions. In addition, not only did he formulate and systemize his theory, but he also practiced it himself throughout life.

Studies were apt to contain ideological components, but Toegye was conscious of the essence of Confucian philosophy as he practiced his theories himself. Toegye's life had a positive effect on scholarship in China and Japan as well, because he had become a model based on his high level of scholarship and his personality. Also, he trained many Confucian scholars in Andong, which was called Yeongnamhakpa (southeastern part of Korea Study Party).

#### 4. Role of Values and Confucianism in Modern Times

Today, various cultures of the world are gathering and meeting and the intellectual level of people raises day by day though the spread of modern technology. Yet struggles and killings from confrontation and conflict continue. Nowadays, Western oriented Modernism which emerged after the Renaissance dominates the world. The fundamental view of Western-oriented Modernism places emphasis on material, economic efficiency rather than on spiritual morality. The value systems placing importance on economic materialism have brought great advancements in industry, science, medical technology and have substantially promoted material abundance and the welfare of all mankind.

But, as the values that emphasize the material rather than the spiritual make weaken morality, the dignity of humans is lost in a vacuum of values. In addition, the continuous desire of materials promotes shortages, discontent and hostility.

Trying to obtain more materials without any limit is the cause of many bad phenomena, including social corruption and violence.

One of the features of modernism in the West is rationalism on the basis of human reason. In the view of rationalism, people view opposite values, like materialism and spirituality, individual and group, human and nature as and opposites rather than as complementary.

Analytic and rational values have promoted a scientific way of thinking, but it has worsened the social conflicts and struggles.

In this way, the values of an individual centered ideology led to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 It has also promoted self-realization and expansion of personality. But freedom without responsibility leads to a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When ignoring the consciousness of the group, individual egoism will dominate. When we lose healthy and balanced thinking, we can experience the problems of aimless violence and collective egoism.

There is a human centered stream in Confucian philosophy. It states that humans should live their lives according to the basis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There is a pure morality that calls to the world beyond materialism, a personality that considers other people and is open to strong criticism and to train the spirit to embody truth and justice. Moreover, the values that Confucianism reached for include individualism 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and collective consciousness, the pursuit of material within the basis of morality and humanity on the basis of maintaining human coexistence with nature.

In 21st century human society, the human dignity should be restored as society is transformed to a more humanitarian world. Although high-tech industry has given us space travel, the human being must remain higher than any technology.

So, we should build such a society that all human beings coexist in peace and realize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cherish the cultures and religions of their counterparts.

## 【論文英文要約】

### *The Analects of Confucius* as norms for the self-regulation of the community

ISHII Hideo

“Community” (*Gemeinde, Gesellschaft*) is a society satisfying the following condition: its indivisible shared means of productions are, in an inseparable way, tied to its indivisible group of producers. This means, it is an integrated organism, and a hierarchical or tribal society, where “kinship” (that doesn’t necessarily imply a blood relation) is the basis on which households are united. Before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came to prevail, this had been the principal manner of forming our society.

*The Analects of Confucius*, one of the most classic pieces in the history of mankind, is a text which goes back to such a period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ago). A landmark research on community, led by Dr. NAKAMURA Kichiji, allows us to recognise, alongside its incontestable importance in general, its specific contributions to social science: the *Analects* reveals what the self-regulating norms of a community are and how we can manage them; in this sense, it is a brilliant resource book for ethics and public philosophy.



# Did TOKIEDA Motoki “misread” th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of Ferdinand de Saussure? – An essay on the role of KOBAYASHI Hideo in the reception of Saussure in Japan

SEKIZAWA Izumi

Probably no one will doubt today the importance of Tokieda’s contributions to linguistics, not only for the study of Japanese language, but also for the study of linguistics in general, especially concerning “modality”. Many philosophers are interested today in Tokieda’s interpretation of the Japanese *sujet parlant* in relation to Nishida’s reconsideration of the idea of subject.

However, only few scholars take Tokieda’s criticism of Saussurean linguistics seriously, because Tokieda *misread* Saussure, making very simple mistakes, when he was doing so. For example, in fact, Tokieda took “*langue*” in Saussure for an “*unité linguistique*” in some passages.

It derives however from the very polysemy of the Japanese word “*kotoba*” which means “*langage*”, “*langue*”, “*parole*”, “*dicours*”, “*unité linguistique*” and other things, as Kobayashi, the first translator of the *Cours*, pointed out its demerit in his introductory book on linguistics. But it is in this polysemy that Japanese speaker (*sujet parlant*) speaks – and speaks on the “*kotoba*”. Tokieda delimited, to a certain extent, the universality of Saussure’s ideas, inverting Kobayashi’s analysis of this polysemy.